



관내 동향

□ 수리온, 중앙 119헬기 2대 수주 성공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한 수리온이 중앙119 헬기 수주에 성공
- 당초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기체 도입 비용만 고려하여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된 입찰방식에 반발해 입찰에 불참하였으나, 이번 달 재입찰에 참가하여 수주에 성공
- KAI는 올해 경남소방헬기 1대, 경찰청헬기 1대, 조달청 1대에 이어 이번 10월에 중앙 119헬기 2대를 추가로 수주해 총 5대 민수헬기 수주했음
- 이런 성과가 향후 수리온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에어버스 헬리콥터 생산라인, 내년 프랑스서 경남 사천으로 이전

- 유럽의 항공기 제작 회사인 에어버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이에 따라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헬리콥터(모델명 EC155B1) 생산라인을 내년까지 경남 사천으로 이전
- 국토교통부는 9월 17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패트릭 키 유럽항공안전청(EASA) 청장이 화상 면담을 열고,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생산라인 국내이전과 원활한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월 18일 밝힘
- 이번 업무약정에는 국내에서의 원활한 헬리콥터 생산을 지원하고 시험비행을 허가하는 등의 양측 협력 사항이 담겼으며, 국내에서 제작·인증된 항공제품이 유럽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양국의 항공당국에서 상호 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협의
- 향후 국내에서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생산되면, 국내 항공 제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항공기 정비, 절반은 해외 외주…지난해 1.2조원 지출

- 국내 항공사들이 지난해 항공기 정비(MRO) 물량의 절반 가까이 해외에 외주를 준 것으로 확인, 작년 지출 금액만 1조2000억원이 넘음
- 글로벌 MRO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해외로 비용이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
- 해외 항공 정비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으며, 2018년에는 항공사들은 전체 정비비의 54%에 달하는 1조3796억원을 해외 업체에 지출, 2017년에도 1조1733억원(51%)을 지출함
- 그나마 2018년 6월 경남 사천에 항공 정비 전문업체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가 생기면서 해외 의존도가 줄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 MRO의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나 국내 MRO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국내 MRO 사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 불과함
- 일각에선 국제선의 75%가 집중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MRO 클러스트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KAEMS를 중심으로 이미 사천에 항공 클러스트가 조성돼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려움
- 사천에는 한국항공우주(KAI)를 비롯해 보잉과 에어버스 등에 주요 항공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 50여 곳이 모여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항공 전문 인력들도 산업단지에 모여있다는 강점이 있음
- 해외 업체에 정비 수요를 뺏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국내 MRO 산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

2019년도 국내 항공사 정비분야별 총 정비비 및 해외 의존도 단위: 원	분야	총 정비비	해외외주비	해외의존도
동 자료는 각 항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집계한 자료	기체정비	2420억	869억	36%
	엔진·부품	2조84억	1조1253억	57%
	운항정비	5117억	458억	9%
	계	2조7621억	1조2580억	46%

자료=국토교통부

2019년도 국내 항공사 정비분야별 총 정비비 및 해외 의존도



국내 동향

□ '화물기 개조' · '관광 비행'... 항공업계, 생존 몸부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다양한 방법의 돌파구를 마련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는 국내선 취항 확대, 항공권 할인 이벤트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응
-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은 못 가지만 여행 기분이라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관광비행이 출시됨.
- 아시아나항공은 10월 24일과 25일 국내 상공을 약 2시간씩 비행하는 'A380 관광 비행'을 출시, 대한항공은 국내 상공이 아닌 해외 상공을 비행하는 관광 비행도 검토 중이며, LCC도 제한적인 관광비행을 시작

□ 필리핀군, 퇴역 한국 공격·기동헬기 도입 추진

- 필리핀군이 퇴역한 한국 공격·기동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 10월 3일 일간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델핀 로렌zana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취임 축전에서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도입할 의향을 전달
- 필리핀 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육군 항공의 UH-1H는 지난 7월 퇴역하고 수리온 헬기로 대체됨
- 올해 4분기에 국방부와 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 도입 대상 헬기들에 대한 육안 검사를 진행할 계획



해외 동향

□ 볼로콥터, 하늘 나는 항공택시 탑승 예약 받는다

- 독일 스타트업 볼로콥터(Volocopter)가 하늘을 나는 전기 항공택시의 티켓 예약을 시작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9월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

- 일반인 대상으로 전기 충전식 수직 이착륙(VTOL) 차량의 탑승 예약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블로콥터는 성명을 통해 ‘블로퍼스트(VoloFirst)’ 비행이 향후 2~3년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 티켓을 구매하면 항공택시 서비스 상용 출시 후 1년 안에 약 15분 동안 블로콥터 비행을 할 수 있음
- 블로콥터의 항공택시는 헬리콥터처럼 생겼지만 드론 기술에 기반을 둔 전기 충전식 비행체로, 성인 2명을 태우고 최장 30분 동안 최대 30km까지 비행 가능

□ 에어버스, 2035년까지 '무탄소배출 수소비행기' 상용화 예정

- 9월 21일, 유럽 최대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는 수소연료전지 항공기를 2035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콘셉트 디자인 3가지를 공개
- 공개된 터보팬 항공기, 터보프롭 항공기, 블렌디드 윙바디 항공기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담아 ‘제로’라는 코드명을 붙임
- 에어버스는 내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2025년까지 최종콘셉트를 선정, 2035년에는 수소비행기를 상용화해 항공기 탄소배출량을 최대 50% 줄이겠다는 계획
- 한편 영국 제로에이비어의 6인승 수소연료전지 항공기 '파이퍼 엠클래스'가 9월 24일(현지시간) 첫 시험비행에 성공, 이는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상업용 항공기의 이륙·비행·착륙은 세계 최초임



블렌디드 윙바디 항공기



터보팬 항공기



터보프롭 항공기

작성일	2020. 10. 19.(월)	보고일	2020. 10. 21.(수)
부서명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오은미(055-831-3478)